

한·중·일 불교학자 하나로 모은 비결은?

불교학의 새로운 명문 요람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HK센터

21세기의 첫 번째 10년을 넘어서서 두 번째 10년으로 들어선 지금, 전 산업 분야를 선도하는 첨단정보기기 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가늠하는 첫 번째 요소는 '철학'이다. 철학이 산업 각 분야의 경쟁력을 가늠하는 핵심요소로 작용한다는 단적인 사례는 아이폰과 아이패드로 대변되는 애플의 경우이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산업사회의 전반을 견인하고 있는 애플의 경쟁력은 '기술'이 아니라 스티븐 잡스로 대변되는 '철학'이다. 스티븐 잡스의 철학이 발명해낸 혹은 그의 철학이 종합해낸 아이폰 상품이 다름 아닌 아이폰과 아이패드이다.

2006년 한국연구재단(舊 학술진흥재단)은 글로벌 시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가 무엇이나 라는 고민과 한국사의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던 '인문학적 정신의 좌초'라는 위기의 국면을 동시에 직면해야 했다. 위기는 고민을 조려했고, 고민은 새로운 기회를 낳는 계기로 작용했다. 그 고민은 당시 한국연구재단의 인문학 분야 사업을 진두지휘 하던 걸출한 프로그래머 조성택 교수(고려대 철학과)를 만나면서 '한국 인문학의 세계화'라는 가치 아래 이른바 '인문한국(HK) 프로젝트'를 출범시킨다. 21세기 들어서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를 강타했던 '한류'와 같은 주도적인 에너지를, 오히려 위기에 좌초되기 직전이었던 한국의 인문학 분야에서 찾아냄으로써, 한국사회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도약의 원천으로서 '인문학'을 주목한 결과였음이 프로젝트는 벌써 5년차를 맞이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적인 사례를 이끌어 내고 있다.

그 인문한국(HK) 프로젝트가 처음 출범할 때, 국내 유수의 전통 명문 대학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선정됐던 불교학 분야의 연구센터가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인문한국(HK)연구센터이다. 신성 대학으로서의 입지 때문에 우려의 평이 적지 않았던 연구 공동체였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지금,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는 적어도 불교학의 특정 분야에서는 '국내'의 범위를 벗어나 있었다.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장 김천학 교수는 "국내의 여러 선생님들께서 적극 도와 주신 덕분이다"라며 공을 사양하지만, 그가 내놓는 연구소 현황과 역할에 대한 해외학자들의 평은 인문한국(HK) 프로젝트 진행 4년 만에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가 이루어낸 성과를 다시 돌아보게끔 할 정도로 만만치 않음을 알 수 있었다.



9월 8일 일본 류코쿠 대학에서 열린 인도학불교학회 행사장 모습.

신성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인문한국(HK) 수주 5년만에
한중일 연구자 하나로 결집한
국제네트워킹 프로젝트 진행 중

이번 취재의 계기가 된 일본인도학불교학회 제62회 대회 패널 발표는 그러한 분위기를 직접 접할 수 있는 계기였다. 일본인도학불교학회는 매 대회 때마다 일반 자유발표와는 별도로 세계불교학계의 흐름을 반영하는 패널발표를 별도로 구성하는데, 올해 류코쿠(龍谷) 대학에서 열린 제62회 발표회에는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인문한국(HK)연구센터를 비롯해 일본 도요(東洋)대학 동양학 연구소, 중국 런민(人民)대학 종교이론과 불교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불성사상의 동아시아적 전개'를 주제로 한 패널이 있었다.

이는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가 진행하고 있는 인문한국(HK) 프로젝트의 핵심 주제인 '불교사상과 문화의 동아시아적 변용'이라는 주제에 기반한 것이다. 한중일 3국의 3개 대학 연구소의 공동패널 구성에 금강대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3개 대학 연구소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패널발표를 진행하는 것은 일본학계에서도 쉽지 않은 일이다. 학회 마지막 날 오후에 진행된 5개의 패널 중에서, 금강대를 중심으로 한 공동 패널이 참가자들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았다.



금강대 김천학 소장(왼쪽에서 세번째)이 일본학자들과 담소하는 모습.

9월 8일 진행된 이날 패널 발표에서는 다케무라 마키오(竹村牧男) 도요(東洋)대학 총장이 직접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일본 도요대학에서 이부키 아츠시(伊吹 敦) 교수가 '신종의 성립과 불성관의 변용', 키츠카와 도모야키(橘川智昭) 교수가 '유식종의 이행(移行)', 중국 런민대학 정원리양(張文良) 교수가 '화엄과 천태의 불성관' 금강대 김천학(金天鶴) 교수가 '불성사상으로부터 본 한국불교와 일본불교'를 주제 발표 했다.

이날 패널 발표의 좌장을 맡은 다케무라 마키오(竹村牧男) 도요(東洋)대학 총장은 "본 패널은 금강대, 도요대학, 인민대학의 세 나라 세 대학이 공동으로 개최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오늘 논의되는 '동아시아 불교에서의 불성론'은 금강대에서도 2012년 6월 22-23일 열린 국제학술대회에 확대·발전시킬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석길안 HK교수에 따르면,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인문한국(HK)연구사업센터는

연구역량의 국제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다.

석 교수는 "이번 한중일 삼국의 공동발표와 연구 진행은 2년 여에 걸친 국제네트워킹 작업의 첫 번째 결실"이라며 "한중일 3개 대학의 연구소간 연구협정이 맺어져 있다. 향후 국제화연구학대의 공동 개최 및 성과물의 한중일 동시 간행도 예정됐다"고 귀띔했다.

이러한 공동 프로젝트가 성사된 데에는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가 HK사업 수주 이후 간행한 《대승사문현의기》 교주분과 《지론사상의 형성과 변용》(일본어판 및 한국어판 동시 간행), 기간 예정인 《장외지론종문현집성》 I · II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는 후문이다.

인문한국(HK) 사업 수주 이후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는 국내는 물론 국제적인 위상을 확보해가고 있다. (자료제공=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HK연구센터)

조동섭 기자

초목성불론, 일본서 구체화됐다

김천학 소장, '불성사상으로부터 본 한국불교와 일본불교'

화엄학에서 '성불'은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한다. 따라서 화엄학은 '불성'에 천착하기 보다는 불성을 전제로 하여 성불의 길을 모색하는데 특징이 있다. 이러한 화엄의 성불론을 구체적으로 논한 것이 신라 건등의 《화엄일승성불묘의》이다. 건등의 본 저술은 일본에서 저술되었다는 점에서 특색이 있다.

건등은 일전제에 청정한 본성이 있음을 주장한다. 건등에게 일전제는 전혀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감임기(堪任位)에 도달할 수 없는 유정을 일컫는 말일뿐이다. 또한 의보와 정보 및 삼세간이 공통적으로 중성을 갖추고 있기에 심오하기에 비정이 성불할 수 있다고 본다.

성불론을 중성의론 통해 이해하는 예는 일본 화엄종 가운데 1019년에 저술된 신엔(親鸞)의 《중성의초》에서 확인된다. 《중성의초》에서는 중성론의 의의가 명확히 성불(成佛) 혹은 불성불(不成佛)을 논하는데 있음을 밝히고 있다. 나아가 무성(無性)을 주장하는 것은 의도라고까지 비판한다.

한편, 건등은 신라 의상학과 전통설에 해당하는 구래성불을 원교의 성불론으로써 주장한다. 건등에게 '불성'이 있다는 사실과 그것으로 인해 '이미 성불해 있다(已成佛)'는 사실은 끊임없는 실천을 통해 매 순간 순간마다 경회되는 산물이다. 그런 의미에서 구래성불의 이명이 염염성불이다. 매 순간마다 성불을 실현하는 구래성불론은 성불의 가능성(佛性)과 가능성의 실현(成佛)을 실천 체험에 근본을 둔 자체불(自體佛)로 일원화시키는 개념이다.

중생이 이미 부처가 아니라면 중일도록 교화해도 성불할 수 없다. 바로 그러한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이 교화이다. 따라서 교화는 극단적으로 말해서 자신(부처)이 자신(부처)을 교화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의상학과 화엄전통을 계승한 건등의 입장이다. 의상학과에서 주장하는 '배자체불(拜自體佛)'의 사상 역시 건등이 계승한다. 성불은 오로지 자신에게 다급한 문제이고, 자신에 의한 성취 방법과, 자신을 위한 성취만이 그 의의에 있어 보편적이다. 전통적인 신라 화엄의 성불론이 실천적일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이것을 계승하는 건등의 성불론 역시 이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촉구하는 성불론이 된다.

일본의 《화엄심현의사기》는 의상학과 의 저술을 처음으로 인용하는 사기류에 속한다. 이 《심현의사기》에서는 의상이 사용하는 구래성불이란 용어를 도입하면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김천학 소장

'일체중생 실유불성'이 화엄 성불론 신라 건등은 화엄서 일본에서 저술 의상학과 전통설 인용한 사상... 교화 당위성은 '중생=부처'에 있어

서, 《화엄경문답》(법장저술로 인식)에서만 사용하는 '무아보심(無我報心)' 개념과 동일화한다. 특히, 《심현의사기》에서 《화엄경문답》을 인용하고, 이성불과 미래불의 관계를 문제 삼는데 이와같은 문제의식은 건등의 《성불묘의》와 가장 유사하다. 《중성의초》와 《심현의사기》에서 건등을 인용한 흔적은 찾을 수 없지만, 그 전개 내용이 비슷하다는 점에서 신라 건등과의 관련을 무시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신라화엄은 일본불교 전개에 일정 부분 역할을 하지만, 일본화엄은 중국 및 신라의 화엄학을 습득하면서 독자적인 사유로 전개된다. 대표적인 것이 《심현의사기》와 《중성의초》에서 전개되는 초목성불론이다. 초기 중국이나 신라화엄에서 구체적으로 초목성불론을 전개하는 경우는 없다. 《심현의사기》에서는 산하대지가 다 실제 성불한다고 주장한다. 《중성의초》에서는 바람소리, 파도소리가 성불한 부처의 설법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성불론은 일본화엄만의 특징으로 볼 수 있는데, 일본의 8종 결합의 풍토 하에서 법상종, 천태종, 진언종 등과 교류를 통하여 화엄종의 교리가 변용되면서 전개된 결과이다.

정리=조동섭 기자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품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는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 (자격검정)

자격과정	교육기간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자연치유의학, 식품영양보충학,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약용식품학, 총 7개 과목 ※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 효소발효액	14주 과정 토요일 반

접수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문의: 02)3147-2020 www.kile.or.kr

지부교육원

창원 055-543-6155 호남 063-288-5623 전북익산 063-854-1060 부산 051-441-0111
울산 052-260-1037 충청북부 043-263-9966 대구 053-566-1116 해운대 051-757-9990
강원서부 033-252-3682 경남 055-932-5877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교직원 양성 전문교육
제79기 佛敎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범고) 다루는법, 도량서, 쇠송, 상단에불, 각단에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공,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계, 다계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모집인원: 30명(선착순) ◆원서접수: 2011년 10월 20일까지
◆개강일시: 2011년 10월 21일(금요일) 개강. 매주(월,금) 오후 5시~6시 30분(1시 30분)
◆제출서류: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중교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특도, 포교원(사찰청진)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教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뒤편 ☎ 02)741-0495, 0496